

# ‘?’과 어간말 후음 재구조화

여은지(원광대)

## <목 차>

- |                               |                    |
|-------------------------------|--------------------|
| 1. 서론                         | 3. 어간 말음의 /ㅎ/ 재구조화 |
| 2. 불규칙 활용 어간의 /ʔ/ 말음 설정<br>문제 | 4. 결론              |

## 1. 서론

이 글에서는 일부 불규칙 활용 어간이 /ㅎ/ 말음으로<sup>1)</sup> 재구조화되었으며, /ㅎ/ 뒤에서 일어나는 경음화가 어미의 보수성 때문임을 주장할 것이다. 불규칙 어간의 활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추상적 ʔ<sup>2)</sup> 음소 목록에 포함하는 것을 배제하고, /ㅎ/ 말음 재구조화만으로 해당 현상을 설명하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성문폐쇄음은 15세기의 ‘ㅎ’[ʔ]에 소급되는 것으로, 중세 국어에서 음절초나 음절 말에 쓰이지 않았다는 점에 미루어 그것이 음소로서 기능하지 않았으며, 문헌상으로는 주로 관형형 어미 ‘ㄷ’ 뒤에서 일어나는 경음화를 표시하기 위한 수단 정도로 쓰였음을 이해할 수 있다. 성문폐쇄음은 지역 방언들에서 보이는 불규칙 활용과 관련한 현상들을 공식적으로 설명하는 데 적극적으로든 소극적으로든 이용되고 있다. 적극적으로는 방언의 음소 목록에 성문폐쇄음이 포함되어

- 
- 1) 재구조화된 어간 말음의 /ㅎ/은 /h/와 /h/ 말음 두 부류로 나뉜다.
  - 2) 편의상 음소로서의 ʔ은 /ʔ/으로, 변이음이나 음성으로서의 ʔ은 [ʔ]로, 그 밖에 논의 전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ʔ으로 표기한다.

기저형으로 존재하는 것이고(최명옥 1978, 1982), 소극적으로는 /ㅎ/의 변이음으로 존재하여 ‘h-ʔ’의 교체를 보임으로써 그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다(백은아 2008).<sup>3)</sup>

그런데 성문폐쇄음은 음소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 음소로 보기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최소 대립쌍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 화자나 청자에게서 심리적 실재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 분포에 제약이 많다는 점 등 새삼스레 지적할 것이 없을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문폐쇄음은 공시적으로 확인되는 몇 가지 음운 현상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는 점에서 최근까지도 음소 또는 변이음으로서 음운 기술에 관여하고 있다.<sup>4)</sup>

국어에 생성음운론이 도입된 이후 ʔ은 불규칙 어간의 활용을 규칙으로 설명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주 활용되어 왔다. 일찍이 최명옥(1978)에서는 경상 방언의 기저 음소에 /ʔ/을 설정하고 그로부터 표면형을 이끌어 내는 음운 규칙을 설정한 바 있다. 중앙어의 ‘신-’ (載)에 대응하는 동남 방언의 ‘sil-’의 기저형이 /ʃil-/로 재구조화된 형태라는 것이 그 예이다. 최근의 논의에서는, 백은아(2008)에서 ʔ가 보이는 분포 제약과 심리적 실재의 부재를 이유로 들어 전북 방언에서 [ʔ]을 /ㅎ/의 변이음으로 설정하고, 어간말에서 /ㅎ/이 폐쇄음화된 결과 ‘걸뜨라~ 걸뜨라’(步)와 같은 수의적 교체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ʔ을 음소로 설정하는 것은 마찰음 계열만 있는 국어 후음 체계의 안정화와 기술적인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는 있지만 단독으로 실현되는 일이 없고 그 분포 또한 지극히 제한적인 ʔ을 음소로 설정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특히 성문폐쇄음은 15세기의 ‘ㅇ’이라는 문자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현대 국어에서도 그것이 음소로 존재하는가를 따지기 위해서는 음운사적인 사실에 대한 고려 또한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성문폐쇄음을 음소나 변이음으로 인정하지

3) 그 밖에 배주채(1998: 98)에서는 어간 말음의 ‘ㄹㅇ’을 표면 음소와 구별하여, 기저형을 구성하는 추상 음소로 보았다. 그런데 본고에서는 추상 음소에서 표면 음소가 도출되는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점에서,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추상 음소를 배제하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4) 성문폐쇄음은 용언 어간말 비음 뒤에서의 경음화, 관형형 어미 ‘-ㄹ’ 뒤에서의 경음화, 사이시옷, 방언의 불규칙 용언 등의 문제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게 쓰인다.

않고, 어간 활용과 관련한 일련의 음운 현상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해당 현상의 원인을 어미에 두고자 한다. 그리하여 후음 말음으로 재구조화된 것은 /ㅎ/뿐인 것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2장에서는 불규칙 활용을 하는 어간 말음이 ?으로 재구조되었다고 설명되어 온 사례를 살펴보고, ?을 음소로 설정할 필요가 없음을 주장할 것이다. 3장에서는 ㄷ 불규칙 활용 어간이 재분석에 의하여 /ㄷㅎ/으로 재구조화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어미의 경음화는 어간말의 /ㄷ/에 의한 것이 아니라 /ㄷ/로 재구조화된 어간에 이전의 보수적 형태인 경음화된 어미가 결합된 것임을 밝힐 것이다.<sup>5)</sup>

## 2. 불규칙 활용 어간의 /ʔ/ 말음 설정 문제

### 2.1. ㅅ 불규칙 어간

최명옥(1982: 163-166)에서는 ㅅ 변칙 활용을 보이는 어간들 중 ‘짓-(造), 중-(拾), 붓-(注)’ 등에 대하여 각각 cǐʔ-, coʔ-, púʔ- 등으로 재구조화된 것으로 해석한 바 있다. 그리고 규칙에 의해 기저 음소 ?가 [t]가 된 후에 후행 자음을 경음화시키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가 t가 되는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음운사적으로 ‘△>ʔ’의 변화가 달리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또한 최명옥(1982) 등에서 ㅅ>ʔ의 재구조화 과정을 설정한 것은 ?가 유성음 사이에서 마치 ‘ㅎ’처럼 탈락하며 후행 자음을 경음화시킨다고 전제하지만 사실

5) 불규칙 어간 뒤에서 어미가 경음화 또는 유기음화되는 예는 어휘와 그 정도에서 차이는 있으나 여러 방언에서 고루 나타난다는 점에서 특정 방언을 염두에 두지는 않았다.

경음화의 원인은 불과화를 거친 어간 말음 ‘ㄷ’에 있다(최전승 2011). 결국 ㅅ 불규칙 어간 말음이 ?로 재구조화된 것으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기술적인 면에 치중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 (1) 짓-(作)→지꼬, 지떠라, 지이마, 지이도  
지-(負)→지고, 지더라, 지마, 지도

위와 같이 ㅅ 불규칙 어간 뒤에서 모음 어미가 축약이나 탈락하지 않으면서 자음 어미가 경음화되는 음운 현상을 최명옥(1995: 335-336)에서는 /ㅎ/ 때문으로 보았다. 김경아(1990)에서는 ㅅ 불규칙 어간의 기저형 설정에서는 ?의 음소 자격을 부정했으나, 용언 어간말 비음 뒤에서의 경음화, 관형형 ㄷ 뒤에서의 경음화, 사이시옷, 방언의 ㄷ 불규칙 용언 등의 문제에 대하여는 ?을 음소로 설정하는 것이 추상성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어 문법 체계의 간소화라는 점에서는 공시태에서 어느 정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성문폐쇄음을 국어의 음소 목록에 포함시키려는 지금까지의 논의들을 뒷받침 하는 중요한 근거 중 하나는 바로 불규칙 활용을 하는 어간들의 존재이다. 이 논의들은 아래와 같은 교체형을 설명할 수 있는 단일 기저형의 말음으로 성문폐쇄음 ?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 (2) /붓:-+-고/→/부:꼬~/부:어/

그러나 성문폐쇄음은 단독으로 쓰이는 일이 없어 /ㅎ/보다도 분포 제약이 심하며, 화자나 청자들에게 심리적 실재가 있는지도 회의적이다. 또 이러한 불규칙 어간의 교체형을 설명할 때 외에는 음소로서의 기능 부담량이 많지도 않다는 점이 성문폐쇄음을 음소로 설정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성문폐쇄음은 단독으로 실현되는 일이 없이 경음화된 결과로서만 그 실체를 드러내며, 엄밀한 의미에서의 최소대립쌍이 발견되지도 않는다.<sup>6)</sup>

본고에서는 ㅅ 불규칙 어간을 비롯하여 ㄷ, ㅂ 불규칙 어간 말음으로 성문폐쇄

음을 설정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본다. ㅅ 불규칙 활용형에서 /부:ㅍ/와 같은 형태가 나타나는 것은 어간 말음이 ㅇ으로 재구조화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ㄷ 폐쇄음화와 동일 조음 위치 자음 탈락이라는 일련의 과정 때문으로 해석된다.

(3) /붓:--+고/→(중화) 붓:고→(경음화) 붓:꼬→북:꼬→[부:꼬]

(1)의 예로 들었던 ‘짓-(作)→지으며, 지어서’와 ‘지-(負)→지며, 저서’에서 보이는 음절의 축약이나 탈락의 양상이 다른 것은 ‘짓-(作)’의 어간말 자음 /ㅇ/이 모음 어미 앞에서 그 흔적을 남기기 때문이 아니라(최명옥 1995), △이 존재하던 시절의 모음 어미가 형태의 보수성에 의하여 그 흔적을 남긴 때문이다. 즉 선행하는 재구조화된 어간 ‘지-’를 음운 변화 이전의 폐음절 어간으로 인식하여 이전의 활용 어미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최전승 2011: 300-301). 이로써 ㅅ 불규칙 어간 말음으로 성문폐쇄음을 설정할 필요가 없어진다.

## 2.2. ㅂ 불규칙 어간

ㅂ 불규칙 활용 어간에서 ? 말음으로 재구조화된 것처럼 보이는 예들 또한 앞서 이야기한 ㅅ 불규칙에서처럼 어미의 경음화된 자음의 원인으로 지목되었지만, 경음화를 일으킨 것은 /ㅂ/이지 ?가 아니다. ‘ㅂ>?’의 음운 변화 또한 음운사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다. 이와는 달리 ㄷ에 후행하는 ㅂ 말음에서는 후음으로 재구조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흔히 방언에서 ?과 변이를 보이는 ‘ㅎ’의 예를 들어 이에 대하여 더 이야기해 보기로 한다.<sup>7)</sup>

6) 최명옥(2004: 28-29)에서는 /ㅇ/을 음소로 설정하고, /ㅁ/(?):/ㅈ/(?):/∅/을 최소 대립쌍으로 제시하였다(장-(作):짓-(吠):지-(負)). 그러나 최전승(2011)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어의 음절말 환경에서 ‘장-(作):짓-(吠)’의 어간말 자음들은 그 변별성이 중화되기 때문에 최소대립쌍의 예로서 적절하지 않다. 또한 ‘지-(負)’는 앞의 형태들과의 음소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의 최소대립쌍의 개념에도 맞지 않다.

역사적으로, ‘뚫->뚫-’(透 穿)의 변화에서, 현대 국어 중부 방언에서는 /tʰurh-/로, 남부 방언에서는 /tʰurp-/로 나타난다.

- (4) 비록 니가 다 서거 찌러디고 입시울이 굼기 쑤러더실디라도 다 뜻느니라  
 <1711두창경,046b><sup>8)</sup>  
 굼글 쑤러 음식을 드리게 호고<1758종덕해,상,021b>  
 穿透 쑤러 나오다<1768몽유보,021a>

위와 같이 ㄹ에 후행하는 자음이 탈락한 어형에 대하여 최전승(1975/최전승 2009: 397-542에 채수록)에서는 β>w 이후에 어간 모음 /u/에 의하여 /w/가 소거된 이화 작용에 의하여 원순성 자질이 소실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점에 착안한 곽충구(1980: 60)은 /rβ/>/rh/의 재구조화 요인을, /β/가 음성 표면에 나타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방도로써 /β/와 자연부류를 이루는 /h/가 선택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모음 어미 앞에서 w가 탈락한 형태를 h가 대신한 것이라는 곽충구(1980)의 주장은 /β/가 이화 작용 때문에 표면에 실현되기 어려운 것처럼, /h/ 또한 유성음 사이에서는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지 못한다. 또한 17세기 전기 자료인 《火砲式諺解》(1635)나 중간본 《박통사》(1677)와 《노걸대》 부류에 반영된 당시 언어에는 자음 어미 앞에서 이미 ‘쑤-’로 어간이 확립되어 있었다는 점에서도(최전승 1975) β>w의 변화에 따른 이화 및 그것의 보충 관계로써 설명하기 어렵다.<sup>9)</sup> 또한 아래와 같은 예들에서는 매개모음 어미와 w가 나타나기 때문에 기저형을 ‘쑤-’이라고 하기 어렵다.

- 7) 2.3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단일 자음 말씀보다는 ㄹ이 선행할 때 어간말 자음의 후음으로의 재구조화가 일어나는 것 같다.  
 8) 예문 검색에는 21세기 세종계획에서 구축한 말뭉치와 SynKDP 1.55(by 박진양)를 사용하였다.  
 9) 최전승(1975)에서 사용된 예는 다음과 같다.  
 남글 쑤디 아니면 스뭇디 아닌는다 호니라<박통사언해,상,14a>  
 헛 곳호로 불워 창 굼글 뚫고<박통사언해,중,35a>

(5) 두 곳에 굵글 쫘으라<1635화포인,017a>

흔 술에 各 열 쫘글 쫘워 열 줄에 니르면 一百 굵기니<1635화포인,019b>

‘뽏→쫘’의 재구조화의 원인으로, 배영환(2005/2011), 권시현(2008) 등은 ‘뽏→쫘’의 재구조화를 w 탈락에 이은 ㅎ 말음 어간으로의 재분석으로 해석하였다.<sup>10)</sup> 이는 최전승(1975)에서 지적했던, 빙>w 변화 이후 이화 작용에 따른 w 탈락에 이어지는 것으로, 배영환(2005)은 19세기 국어에서 ‘쫘’이 형성된 시기가 유성음 사이에서 ‘ㅎ’ 탈락이 왕성하던 시기와 겹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언증들이 ‘쭈러, 쭈르면’과 같은 활용형을 이 시기 왕성하였던 ‘ㅎ’ 탈락에 의해 유성음 사이에서 탈락한 것으로, 즉 본래 ‘ㅎ’이 어간 말음으로 존재하였던 것으로 재분석한 결과 ‘쫘코, 쫘티’와 같은 활용형이 나타났고, 이로 인해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석하였다. 빙>ㅎ 재구조화를 음운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개연성 있게 추정하였다고 생각된다.

기저형의 변화, 즉 재구조화에는 음운 변화나 음운 규칙 체계의 변화와 같은 음운론적 요인, 활용 패러다임의 수평화, 상이한 접사의 첨가와 같은 형태론적 요인, 유추(analogy), 재분석(reanalysis), 혼효(blending), 감염(contamination) 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관여한다(소신애 2004). 곽충구(1980)은 ‘쫘’로의 재구조화의 원인을 직접적인 음운 규칙의 적용으로 설명하였고, 배영환(2005)은 재분석이라는 기제를 도입하여 동일한 현상을 설명하였다.

음운 변화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음운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것이 우선이겠으나, 때로는 그러한 기술이 지나치게 추상적인 분석이 되는 경우가 있다. ? 말음으로 어간을 재구조화하려면 일단은, 국어 음운사에서 일반적인 현상인가, 재구조화된 어형을 도출하는 과정이 자연스러운 음운 과정인가, 그리고 현대 국어의 음소 목록을 바탕으로 후음 말음 어간을 재구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조건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β>?로의 변화는 음운사적으로 일반적인 음운 변화가 아니며, 도출 과정도 자연스럽지 않다. 또한 꺠이 ?을 어간 말음으로 설정하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10) ‘재분석’이라는 용어는 청자 입장에서 활용형을 다양하게 재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誤分析’보다 더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음운 과정에 의해 표면형이 설명된다.

(6) 굽--+고	(경음화)
굽꼬	(조음 위치 동화)
국꼬	(동일 조음 위치 자음 탈락)
/구꼬/	

그런데 (6) 외에 ‘굽찌’ /구찌/ 등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굽찌’ /구찌/ 등은 양순음이 설정성을 가진 경구개음의 조음 위치에 동화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조음 위치 동화로 볼 수 없다. 최전승(2011: 303)에서는 ‘늑:-노-×(비음화)늑:-노→(조음 위치 동화)[늑:-노]와 같이 설명하였으나, 이는 ‘치조음<양순음<연구개음’의 순으로 조음 위치 동화가 보이는 일반적인 경향에 반하는 해석이다. 그러나 어미 ‘-지’와 ‘-노’에 모두 [설정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조음 위치 동화의 방향이 반드시 ‘치조음<양순음’의 순이어야 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둔다.

결국 ㅂ 불규칙 어간은? 말음 재구조화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어간 말음을 [ʔ]으로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리고 이들 어간말에서의 ʔ의 음소 설정 문제도 무의미해진다.

### 2.3. ㄷ 불규칙 어간

앞 절에서는 국어에서 /ʔ/ 말음으로 재구조화되었다고 취급되어 온 형태들을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ʔ/ 말음으로 어간을 재구조화할 때에는 국어 음운사에서 일반적인 현상인가, 재구조화된 어형을 도출하는 과정이 자연스러운 음운 과정인가, 그리고 현대 어형을 바탕으로 /ʔ/ 말음 어간을 재구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조건을 염두에 두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그 결과 ㅂ 불규칙 활용과 ㅂ 불규칙 활용을 하는 어간 말음을 /ʔ/으로 재구조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치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앞의 ㅅ 불규칙 활용이나 ㅂ 불규칙 활용에서와는 달리 ㄷ 불규칙 활용에서는 ? 혹은 ㅎ의 존재가 더 분명히 드러난다. ‘싣-’(載)는 ㄷ 불규칙 어간 중 어간 말음의 재구조화를 보이는 대표적인 어형 중 하나이다. 19세기 후기 자료에서 이미 ‘실-’로 재구조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최전승 2011: 310)<sup>11)</sup>. 그리고 현대 국어에서 ‘silh-’ 또는 ‘sil?-’의 형태로 전국적으로 확인된다.

ㅎ과 ?이 수의적으로 교체된다고 보는 입장은 주로 이 둘이 구강 내 일정한 조음점이 없으며, 분포 제약이 같고, 후행 자음과의 결합 관계에서만 그 존재가 확인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불규칙 어간 말음으로 성문음 ㅎ이나 ㅎ 둘 중 하나로 재구조되었다고 보는 경우는 많다. ㅎ이 선택되는 경우는 대개 자음 어미와의 결합에서 경음화가 일어나는 것을 참고로 한 경우이다(김현 2001). 문제는 ㄷ 불규칙 어간 말음으로 ㅎ과 ?을 둘 다 설정할 수 있는가이다.

최명옥(1978) 등에서는 ㄷ 불규칙 어간의 기저형을 /Xl?/으로 설정하였고, 백은아(2008) 등에서는 ㄷ 불규칙 교체를 보이는 어간의 기저형을 /Xlh/의 단일 기저형으로 보았다. 본고에서는 성문폐쇄음을 어간말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Xlh/의 단일 기저형을 인정하되 백은아(2008)에서처럼 성문폐쇄음을 /ㅎ/의 변이음으로 보지 않는다.<sup>12)</sup>

11) 몸 목예를 실고 능히 걸어 다니는 거시라(독립,1896,11,24.)

집도 실고 다니며 슈레도 실고 다니게 흐나니라(1897.7.1.)

12) 백은아(2008)에서처럼 성문폐쇄음을 /ㅎ/의 변이음으로 설정하게 되면 분포 제약이 있는 /ㅎ/의 자음으로서의 지위가 조금 더 공고해진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논느]이나 [노쓰]와 같은 표면형을 /ㅎ/으로부터 직접 도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국어에서 한 자음의 변이음들이 자유 변이를 보이는 경우 그 환경은 음절말이나 두 자음 사이가 아니라 음절초 위치이다. 반면 성문폐쇄음이 수의적인 규칙순에 의하여 /ㅎ/와 교체되는 환경은 형태소 경계를 사이에 두었을 때여서 일반적인 자음들이 보이는 자유 변이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ㄷ]과 [ㅌ]은 음절초에서는 자유 변이음이나 음절말에서는 조건 변이음이다. 그런데 /ㅎ/과 성문폐쇄음은 음절말, 엄밀히는 형태소 경계에서만 둘의 교체를 통해 자유 변이를 확인할 수 있고 음절초에서는 둘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즉 두 이음이 교체하는 환경을 정의하는 데 제약이 많다는 것이다.

백은아(2008)에서는 [ㄹ]을 /ㅎ/의 변이음으로 설정하고, 어간말 /ㅎ/이 폐쇄음화된 결과 [ㄹ]이 후행 자음을 경음화시키는 것으로 보았다. 문제는 두 이음이 수의적 교체를 보인다는 것인데, 후행 자음이 있는 동일한 환경에서 각기 다른 규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는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후행 어미를 경음화시키지 않는 ㅎ 말음 어간들이 있다는 점에서<sup>13)</sup>, 규칙순을 명확히 하기 어려운 이러한 규칙으로는 해당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h]-[ㄹ]의 변이라는 측면에서, 오종갑(1988: 24; 각주 11)에서는 어간 ‘똥-(鑿)’의 활용형 ‘똥고’를 [똥꼬]가 아닌 [똥꼬]로 발음하는 것에 대하여, ‘ㅎ’가 약화되어 후두긴장으로 바뀌고, 그것이 후속 자음에 결합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 주장도 국어에서 자연스러운 음운 과정인 ‘ㅎ+평폐쇄음’의 축약을 체치고 왜 경음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실꼬]나 [실꼬]와 같은 유기음화와 경음화에 대하여 최진승(2011: 312-313)은 어간 재구조화와는 무관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대신에, 선행하는 /ㄹ/이 후행 자음을 수의적으로 유기음화 또는 경음화시키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유기음화나 경음화는 어간말 ‘ㄹ’이 가지는 특정한 음성적 특질에 말미암은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어간말 ‘ㄹ’의 어떠한 특성이 유기음화와 경음화를 동시에 일으킬 수 있는지 분명한 답을 보이지 않았다. 체언 어간말 ‘ㄹ’ 뒤에서는 용언 어간말 ‘ㄹ’ 뒤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경음화와 유기음화의 수의적 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불규칙 어간 말음 ‘ㄹ’ 이외의 다른 어간 말음의 활용형, 즉 ‘멀고’(遠), ‘달지’(甘) 등에서는 경음화와 유기음화의 교체가 나타나지 않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sup>14)</sup> 때문에 불규칙 어간 말음 ‘ㄹ’ 뒤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는 어간말 ‘ㄹ’ 고유의 음성적 특성이 아닌 다른 데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13) ‘싫-(惡), ‘잃-(失), ‘좋-(好), ‘놓-(放) 등은 자음 어미를 경음화시키지 않는다.

14) 비슷한 예로, 관형형 어미 ‘-ㄹ’이 후행하는 체언의 어두 자음을 경음화시키는 것은 중세 국어 때부터 ‘ㅇ’으로 표기되는, /ㄹ/의 폐쇄음화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어 왔으나, 동일 환경에서 후행 자음을 유기음화시키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실-’(載)를 예를 들어 ㄷ 불규칙 어간의 재구조화 과정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실-’로 어간 단일화가 일어난 결과 ‘실-’은 경음화된 어미만 남기고 기저형 목록에서 삭제된다. 그 과정은 /실찌/, /실꼬/에서의 어간말 폐쇄음의 속성 때문에 일어난다. 즉 후행 파열·과찰음 앞에서 /ㄷ/이 변별되지 않기 때문에 [실찌]와 [시찌], 그리고 [실꼬]와 [시꼬]가 청자에게는 거의 같은 소리로 들린다. 때문에 어간말의 [ㄷ]에 대한 인식이 약해지고, 이는 자음 어미와 결합하는 어간에 대한 인식 또한 약하게 만든다. 이 점이 모음 어미와 결합하는 형태인 /실-/로 어간 단일화가 일어나는 계기를 제공한다. 단일화가 일어날 때 경음화된 어미는 그대로 남아 활용 패러다임에 참여한다. 그리하여 자음 어미 앞에서는 ‘실꼬’와 같이 실현된다. 이후 ‘실-’이 모음 어미 앞에서 /ㅎ/ 말음으로 재분석된 결과 ‘실꼬’와 같은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 ‘실꼬’에 대하여는 3.1에서 더 이야기하기로 한다.

### 3. 어간 말음의 /ㅎ/ 재구조화

#### 3.1. 재분석에 의한 불규칙 활용 어간말 /ㅎ/ 재구조화

이 절에서는 불규칙 어간 말음이 어떻게 /ㅎ/으로 재구조화되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려 한다. 본고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ㅅ 불규칙 어간과 ㅂ 불규칙 어간, 그리고 ㄷ 불규칙 어간의 말음이 일률적으로 /ㅎ/으로 재구조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ㄷ/, /ㄹ/, /ㄷ/ > /ㅎ/’라는 무리한 변화를 상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ㄷ/, /ㄹ/, /ㄷ/ 중에서 /ㅎ/ 말음으로 재구조화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음운사적으로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은 /ㄷ/이다.

2장에서 우리는 /실꼬/라는 형태를 후행 파열·과찰음에 선행하는 /ㄷ/이 변별되지 않는다는 특성 때문에 /ㄷ/이 삭제된 결과 /실-/의 어간 단일화가 일어나고,

이 어간에는 경음화된 어미가 보수적으로 남아 활용 패러다임에 참여한 것으로 보였다. 그리하여 모음 어미 앞에서는 /시리/, 자음 어미 앞에서는 /실꼬/와 같은 어간 단일화를 보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실꼬]에서와 같이, ㄷ 불규칙 어간이 후행하는 어미 두음을 유기음화시키는 것은 청자가 어간 말음을 /ㄹㅎ/으로 재분석했기 때문이다. 즉 [시리], [시르니]에서 어간을 재분석할 때 /ㅎ/을 첨가한 결과 /싫-/을 도출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실-/이라는 모음 어미와의 결합형을 바탕으로 ‘ㅎ’ 말음을 복구해 낸 결과 /ㄹㅎ/으로의 재구조화가 일어났다고 본다. ‘실-/이 모음 어미 앞에서 /ㅎ/ 말음으로 재분석된 결과 ‘실꼬’와 같은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 즉 /실-/에 후행하는 유기음화된 어미는 /ㄹ/로 재구조화된 어간의 활용형을 재분석한 결과 /ㄹㅎ/ 말음으로 재구조화된 후 그에 맞게 개신된 어형이다. /ㅎ/이 유성음 간에서 약화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청자가 /ㄹ/ 뒤에서 /ㅎ/을 과잉 도출해 낸 것으로 추정한다. 실제로 /끌꼬/, /끌치/ (‘끌-’ (牽))와 같이 어간 말음 /ㄹ/ 뒤에 /ㅎ/이 첨가된 것이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하는 예이다.

유성음 사이의 환경에서 ‘ㅎ’이 탈락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ㅎ’ 탈락이라는 음운 현상에 대한 일종의 과도교정으로 해석된다. 과도교정은 화자가 발화한 것을 청자가 잘못 복원한 결과 일어나는 음운 변화로, 청자가 유성음 사이에서 ‘ㅎ’을 잘못 복원한 때문에 ‘ㅎ’ 첨가형이 나타난 것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끊-’ (斷)의 경우를 더 보기로 한다. ‘끊-’은 화자들에 의해 아래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된다.

- |            |                     |
|------------|---------------------|
| (7) ‘끊-’   | ‘끊기-’               |
| /끈치/, /끈찌/ | /끈키다/, /끈끼다/, /끈기다/ |

위에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유성음 사이에서 /ㅎ/이 약화되는 규칙을 알고 있는 청자는 다양한 방향으로 형태를 복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즉 원래의 /ㅎ/으로도, 성문폐쇄음으로도, 아니면 아무 것도 없는 상태로도 어간을 복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한 언어 공동체 내에서도 동일 표면형에 대한 화자들의 분석이 저마다 다를 수 있는 것은 재분석이라는 언어 변화의 기제가 본질상 비체계적 과정(non-systematic process)이기 때문이다(소신애 2005).<sup>15)</sup>

어간 말음 /ㄹㅎ/은 인정하지 않는다. /실꼬/에서 /싫-/을 재분석해 내는 것은 /조코/에서 /좃-/를 분석해 내는 것과는 다르다. /ㅎ/은 음절말의 위치에서는 후행하는 자음과 축약되어야만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음절초에서 단독으로 실현되기 때문에 화자나 청자는 /ㅎ/을 음소로 인식할 수가 있다. 그러나 성문폐쇄 음은 어떤 환경에서도 단독으로 실현되는 일이 없고, 때문에 최소 대립쌍도 만들지 못한다. 표면형에 드러나지 않는 ㅎ으로의 재구조화가 재분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

/ㅎ/의 변이음으로서의 [ʔ]도 불규칙 활용에서는 필요가 없다. 개신된 어간의 말음에서 ʔ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은 재구조화되기 전에 어간과 결합하던 어미의 보수적 형태이기 때문이다. 즉 /실꼬/에서 어미의 자음이 경음으로 실현된 원인은 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간 재구조화가 일어나기 전의 활용 어미 '-꼬'에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어간 말음이 모음 어미 앞에서 재조정이 이루어진 후에도 자음 어미 앞에서는 종전의 어미와 통합된 활용형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는 것이다.<sup>16)</sup>

현대 국어 ㅂ, ㅅ 불규칙 어간과 비교할 때 ㄷ 불규칙 어간은 월등하게 /ㅎ/ 재구조화를 보이며, 여러 방언에 걸쳐 /ㄹㅎ/으로 재구조화된 형태로 출현한다. 그런데 /ㄹㅎ/으로 재구조화된 이후에도 /실꼬/와 같은 경음화된 활용형이 함께 나타난다. 앞의 ㅂ, ㅅ 어간의 경음화된 활용형은 어간말 자음의 폐쇄음화에 이은 경음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으나 이미 /ㄹㅎ/ 재구조화가 이루어진 상태에

15) /끈지/가 나타나지 않는 것 또한 재분석이나 재구조화가 본질적으로, 점진적이고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16) 최전승(2011: 296-300)에서는 기원적으로 어간말에 부음 'y'를 가지고 있던 'ㅎ'가 부음이 탈락된 후에도 어간 변화 이전의 활용 어미 '-야'와 결합하는 것이, 재구조화된 개신 어근에 예전의 굴절 어미가 곧바로 순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서는 동일 과정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현상은 어간이 /ㄹㅎ/으로 재구조화된 이후에도 오랜 기간 /ㄷ/ 말음에 의하여 자음 어미가 경음화되었던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sup>17)</sup>

/실꼬/와 같은 활용형이 나타나게 된 것은 어간과의 통합 관계에서 형성된 ‘-꼬’, ‘-찌’ 등의 경음화된 어미가 어휘화되어 새로 교체에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어간 말음 뒤에서 자음 어미 ‘-고’, ‘-지’가 경음화되지 않는 것은 ‘ㄹ’ 말음 어간 뒤에서뿐으로, 상대적으로 경음화된 어미의 출현 빈도가 높다(/알고/, /알지/). 어간과의 통합 관계에서 형성된 ‘-꼬’, ‘-찌’ 등의 경음화된 어미는 활용에서 기능부담량이 크기 때문에 어휘부에 저장될 가능성이 높다.

어미의 보수성을 보여 주는 또 다른 예를 보기로 한다. 백은아(2008)에서는 명사 ‘오늘’, ‘내일’이 /오늘또/, /내일또/와 같이 후행하는 조사의 초성을 경음화시키는 현상을 두고 어간이 /오늘ㅎ/, /내일ㅎ/<sup>18)</sup>으로 재구조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오늘또/, /내일또/와 같은 현상을 어간의 재구조화로 설명하면 해당 어간이 다른 조사와 결합할 때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놓치게 된다. [오늘째], [오늘쪼차], [오늘뵈대]와 같은 표면형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sup>19)</sup>, 경음화의 원인을 어간이 아닌 어미에 두어야 할 것이다.

2장에서 우리는 불규칙 어간에 후행하는 어미가 경음으로 실현되는 현상만 설명하고 간혹 유기음과 수의적으로 교체를 보이는 것에 대하여는 설명하지 않았다. 일부 방언에서는 불규칙 어간의 불파음에 후속하는 자음 어미의 초성이 경음화하는 동일한 환경에서 유기음화를 동시에 보이는 경우가 있다.

---

17) /ㅎ/으로 재구조화된 이후에도 경음화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들, /실꼬/, /실찌/ 등은 /ㄹㅎ/으로 재구조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중간적 형태로서, 경음화된 어미가 어휘부에 저장되어 활용 패러다임에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18) 백은아(2008)에서는 [ㅁ]을 /ㅎ/의 변이음으로 보고 규칙의 수의적 적용에 의하여 경음화나 유기음화가 선택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설명한 바 있다.

19) [오늘째나 [오늘쪼차]는 문어적인 특징 때문에 표면형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오늘뵈대]는 실현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지적을 들었다. 이에 대하여는 추후 예를 더 확보하여 보완하고자 한다.

(8) ‘굽-’

/굽:ㅏ-고/→ 굽:꼬→ 국:꼬→ [구:꼬] cf. ~[구:꼬]

‘붓-’

/붓:ㅏ-고/→ 붓:고→ 붓:꼬→ 북:꼬→ [부:꼬] cf. ~[부:꼬]

/구:코/(굽-)나 /부:코/(붓-)처럼 ㅂ 불규칙과 ㅅ 불규칙 어간이 유기음화된 활용형을 보이는 것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2.2의 ‘뽕->쫘-’의 재구조화에서 보았듯이 ㅎ으로의 재구조화가 실제로 일어난 변화이기 때문에 /구:코/와 같은 형태를 동일한 원리를 적용하여 재분석으로 설명할 수 있다.<sup>20)</sup> ㅅ 불규칙 어간 또한 같은 설명을 적용할 수 있다.<sup>21)</sup>

### 3.2. /ㅎ/ 말음 어간에서의 ? 문제

위에서 기술하였다시피 ‘?’을 형태음소로 설정하기에는 다른 음소와 달리 출현 환경이 지나치게 제한적이고 심리적 실재가 부재한다는 문제가 있다. 불규칙을

20) 물론, ‘구꼬, 구찌(군찌), 구으나’ 등으로 실현되는 방언의 경우 ‘ㅇ’을 설정했을 때 ‘구찌(군찌)’도 설명력이 있지만, ‘구으나’가 ‘구나’로 실현되지 않은 것에 대한 설명력도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ㅎ/ 말음을 설정했을 때에도 /구으니/와 같은 예를 설명할 수가 있다. 즉 /구으니/라는 실현형에서 유성음 간 /ㅎ/ 탈락이 일어난 것으로 [구으니]를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다. ‘구훈’과 같은 예를 찾을 수 없어 유사한 예로 다음을 제시한다.

몸을 도리키면 상허기 쉬홀지니<1894천로역,상,064a>  
저 사람이 올라오면 나의 종격이 탈노되기 쉬홀지라<18a?소상강,057>  
치식구름과 류리와 고흔 꽃과 발근 달 갖거늘<1883명성경,011b>

21) 다만 다음과 같은 예문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보수적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다.

한숨 디허 닐오더<1471삼강행,열024a>  
嗚呼는 한숨 디툏흔 겨치라<1459월인석,서1,023a>  
다만 기리 한숨 지더니<1703삼역총,5,023a>

줄이고 기술을 간명하게 한다는 점은 좋으나 지나치게 기술적이다. 또한 ?에 의한 최소 대립쌍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음소로서 혹은 변이음으로서 ?의 설정을 주장하는 기존의 근거들이 상당 부분 약화된 상황에서, 재구조화된 ㄷ 불규칙 어간과 /ㅎ/ 발음 어간과의 관계를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ㄷ 불규칙 어간이 재구조화한 /ㄹㅎ/ 발음 어간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고 /다따/, /다찌/('당-')와 같이 본래 /ㅎ/ 발음을 가진 어간에서 보는 것처럼, /ㅎ/ 발음을 가진 어간이 후행 자음을 경음화시키는 것은 성문폐쇄음 때문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현상 또한 성문폐쇄음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일어나는 것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2장에서의 불규칙 활용 어간에 비하여 원래부터 /ㅎ/ 발음을 가지고 있던 어간이 후행 자음을 경음화시키는 것은 그 설명이 더 어렵다. 본고에서는 이에 대하여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우선 /ㅎ/ 발음 어간이 후행 자음을 경음화시키는 예를 보도록 하자.

(9) '당'	/다토록/, /다치/	/단토록~다토록/, /단찌~다찌/
'짙'	/찌타가/, /찌치/	/찢따가~찌따가/, /찢찌~찌찌/
'땅'	/따타가/, /따치/	/땀따가~따따가/, /땀찌~따찌/

위와 같은 경음화에 대하여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이 형태들이 기원적으로 어간 발음 /ㅎ/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문헌 자료에서 이들 어휘들은 ㅎ>ㅎ의 변화를 보여 주지 않는다.

(10) (ㄱ) '당'

이비 독 부리에 다케 ㅎ고<1489구급간,01,073b>  
하늘의 다흔디라<1760무십이,232>

(ㄴ) '당->쌩->쌩->쌩' (搥)

즌 흙ㄴ티 디코<1466구급방,상,083a>  
디흔 짝<1489구급간,02,099a>

搥擣 쨌타<1768몽유하,002a>

이는 쇠절공이로 쇠절구를 쨌으려 호는 뜻이라<1852태상  
해,5,017b>

(ㄷ) ‘당->땅’

뵈 뵈며 다화 다하 겨지뵈 이를 뵈화 衣服을 뵈<sup>2</sup>를 뵈니라<1475내훈  
언,03,003a>

머리 다흔 차를 보면 문득 죽이더니<1760낙무팔,187>

두 번째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ㅎ/ 말음 어간이 /ㄷㅎ/으로 재구조화된 ㄷ 불규칙 어간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ㄷ 불규칙 어간이 /ㄷㅎ/ 말음으로 재구조화된 이후에도 여전히 경음 어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유추된 것으로 설명된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11) /싫-/(載)                      [시러], [실코-실꼬], [실치-실찌]  
/당-/(接)                      [다아], [다코-다꼬], [다치-다찌]

재구조화된 ㄷ 불규칙 어간에는 보수적인 어미 형태가 남아 있었으나 /ㅎ/ 말음 어간에는 그러한 형태가 없었다는 점에서, /ㅎ/ 말음 어간이 /ㄷㅎ/ 어간의 활용 패러다임을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 즉 /실치~/실찌/와 같은 수의적 교체에서 경음화된 어미를 본떠 /찌치~/찌찌/의 교체를 보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현상은 어떤 규칙성이나 광범위한 적용을 찾을 수 없는 일시적이고 산발적인 것으로 보인다. 해당 어형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유추가 확대되지 않고 몇 개의 어휘에 한하여 일어난 변화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ㄷ 불규칙 어간이 재구조화 한데 영향을 받아 일어난 부수적 현상으로 처리해도 무방할 듯하다.<sup>22)</sup>

22) 이 부분은 마땅한 예가 없어 추측에 기반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추후 이에 대한 예를 보강하고자 한다.

## 4. 결론

본고에서는 ? 말씀 재구조화로 설명되어 온 불규칙 활용형을 중심으로 이들 어간 말음에 성문폐쇄음을 설정할 필요가 없으며 /ㅎ/ 말씀 재구조화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하였다.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ㄷ, ㅅ, ㅂ 불규칙 어간의 활용 과정에서 ?의 음소 설정 여부를 논의하는 자체가 불필요함을 주장하였다. ㄷ, ㅅ, ㅂ 불규칙 어간은 /ㅎ/으로만 재구조화되었으며, 자음 어미가 경음화되는 현상은 ? 때문이 아니라 동일 조음 위치 자음 탈락과 어미 보존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설명되었다.

3장에서는 /ㅎ/ 말씀으로의 재구조화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ㄷ 불규칙 활용 어간을 중심으로, 이 재구조화는 활용형의 재분석에 의하여 일어난 것으로 보았다. /ㅎ/ 말씀 어간에서 일어나는 경음화는 /ㄷㅎ/ 말음에 유추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 논문의 의의는 추상적 음소나 변이음의 설정 없이 후음 말씀 재구조화를 설명하고, 청자 중심으로 현상을 해석하려 했다는 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추상적인 기술을 지양하는 데 치중한 나머지 기왕의 논의들에서 더 나아가지 못한 점은 앞으로 필자가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 <국문 초록>

본고에서는 소위 ? 말씀으로 재구조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어간들을 그 성격에 따라 분류하고, 어간 재구조화 결과로서 ? 말음이 과도하게 쓰이고 있음을 비판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ㄷ, ㅅ, ㅂ 불규칙 활용 어간의 재구조화 과정을 살핌으로써 ?의 음소 설정 논의 자체가 불필요함을 주장한다. ㄷ, ㅅ, ㅂ 불규칙 어간은 ?과 변이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ㅎ/으로만 재구조화되었다. 이 재구조화는 어미 간소화의 일환으로 나타난 것으로 설명된다.

3장에서는 /Xㅎ/ 말씀으로의 재구조화에 대하여 논의한다. ㄷ 불규칙 활용 어간을 중심으로, /ㅎ/ 말씀 어간에서 일어나는 경음화를 함께 다룬다.

이 재구조화는 활용형의 재분석에 의하여 일어난다.

주제어: 성문폐쇄음, 재구조화, 불규칙 활용, /ㅎ/ 말음, 재분석

## <참고 문헌>

- 곽충구(1980), 「십팔세기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곽충구(1995), 「어의 분화에 따른 단어의 형태분화와 음운 변화-‘뺑-’과 ‘부수-’의 경우」, 『국어사와 차자표기』, 태학사. (국어학강좌 6 《방언》 재수록).
- 권시현(2008), 「‘ㅎ’말음 용언 어간의 방언간 대응에 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김경아(1990), 「활용에서의 기저형설정과 음운현상」, 『국어연구』 94호, 서울대 국어연구회.
- 김경아(2000), 『국어의 음운표시와 음운과정』, 태학사.
- 김현(2001), 「활용형의 재분석에 의한 용언 어간 재구조화- 후음 말음 어간으로의 변화에 한하여」, 『국어학』 37, 국어학회, 85-113면.
- 배영환(2005), 「‘ㅎ’-말음 어간의 재구조화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백은아(2008), 「전북 방언 [ʔ]의 음운론적 처리」, 『한국언어문학』 67, 한국언어문학회, 61-79면.
- 소신애(2005), 「어간 재구조화의 진행 과정(2)-훈춘 지역 세대별 화자들의 활용 어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국어학』 45, 국어학회, 41-67면.
- 신승용(2003), 『음운 변화의 원인과 과정』, 국어학 총서 43, 국어학회, 태학사.
- 오종갑(1988), 『국어 음운의 통시적 연구』, 계명대학교출판부.
- 최명옥(1978), 「동남방언의 세 음소」, 『국어학』 7, 국어학회, 71-89면.
- 최명옥(1982), 『월성지역어의 음운론』, 영남대학교출판부.
- 최명옥(1995), 「경남 합천지역어의 음운론」, 『대동문화연구』 30,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소, 333-358면.
- 최명옥(2004), 『국어 음운론』, 태학사.
- 최전승(1975/2009), 「중세국어에서의 이화작용에 의한 원순성 자질의 소실에 대하여」, 『국어연구』 33, 국어연구회, 1-108면/『국어사와 국어방언사

와의 만남』, 역락, 397-542면에 재수록.

최전승(2011), 「불규칙 활용의 규칙화와 ‘어[?]에 대한 인식의 전개와 음운현상의  
본질」, 『교과 교육 연구』 제4호, 전북대학교 교과 교육 연구소, 241-337면.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7), 『한국방언자료집』 V- 전라북도편.

<Abstract>

## ‘?’ and Laryngeal Ending Sound Restructuring of the Stems

Yeo, Eunji

This article aims to classify the features of stems which can be seen to be restructured with so-called ? ending sound and criticize the excessive use of ? ending as a result of stem restructure.

In Chapter 2, we will examine how the irregular conjugation stems such as t, s, and p are restructured to say that the discussion over setting ? as a phoneme is unnecessary from the first place. The irregular stems of t, s, and p are not variated to ? but simply restructured to /h/. This restructure can be explained as part of ending simplification.

Charter 3 discusses restructure to /Xh/ ending. Focusing on the irregular conjugation stem of t, it will also deal with the strengthening that occurs in the stem of /h/ ending as well. This restructure occurs by the reanalysis of the conjugated form.

**【Key words】** : glottal stop, restructuring, irregular conjugation,  
/h/ ending, reanalysis

여은지

원광대학교 강사

(570-749)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전자우편: aries45@hanmail.net

이 논문은 2011년 12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2년 1월 30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2년 2월 13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